2026 JB금융 Capital Markets Day

질의 응답 요약

Sep 18, 2026



JB Financial Group

본 자료는 'JB금융 Capital Markets Day' (2026.09.18. 실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발언자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요약한 자료로서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pital Markets Day 주요 질의 내용

○ 참석자 질문 요약

구 분	내 용	Page
국내투자자 A	‣ BNK금융지주 합병 검토 요청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 ‣ 지방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지방은행의 장기 전략	p.3
국내투자자 B	‣ 외국인 대출 및 자동차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계열사 간 상호 수익 잠식 가능성 여부 ‣ 외국인 대출 연체율 상승 원인 및 대응 방안	p.5
해외투자자 C	‣ JB우리캐피탈 및 유가증권 이익 기여도 확대에 따른 은행·캐피탈 간 적정 이익 mix 및 지속가능 수익구조	p.6
해외투자자 D	‣ 지역경제 부진 장기화 시 자산건전성 영향 및 대응 여력 ‣ 자산건전성 추가 악화 시 주요 리스크 요인	p.7
해외투자자 C	‣ 금리 상승이 기업 경영 및 JB금융 손익에 미치는 영향	p.8
국내투자자 E	‣ 신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진행 상황 ‣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의 비중 기준 변경 가능성	p.9
국내투자자 E	‣ 금리 변동 시 JB우리캐피탈의 조달·운용금리 및 유가증권 손익 메커니즘	p.9
해외투자자 D	‣ 경쟁사 대비 RoRWA 및 NIM-CCR 격차 축소 원인과 경쟁 우위 유지를 위한 개선 과제 ‣ RoRWA 및 NIM-CCR의 향후 전망	p.10
국내투자자 F	‣ 증권사 없이 비은행 부문이 차지할 수 있는 그룹 이익 비중 ‣ 비은행 부문 확대를 위한 전략 및 향후 계획	p.10
국내투자자 G	‣ AI Native Bank의 매출 성장 및 비용 절감 등 기대효과 ‣ JB금융이 공략하는 니치마켓에 경쟁사 진입이 어려운 이유	p.12

Opening & 환영인사

○ J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성제환 이사

안녕하십니까? J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성제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JB금융 Capital Markets Day 행사에 함께해 주신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이사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과거보다 한 단계 도약하며 그 위상이 새로워진 만큼, 시장과 투자자 여러분께서 상장회사에 요구하시는 기업가치의 기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엄격해졌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경영을 확고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책임 경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본배분의 효율성 극대화와 차질 없는 주주환원 정책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진 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이사회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JB금융그룹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의견은 향후 이사회 활동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제안과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JB금융그룹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회장

안녕하십니까. JB금융그룹 CEO 김기홍입니다.

오늘 JB금융 Capital Markets Day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2023년에 처음으로 Capital Markets Day를 개최한 이래로 매년 정례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을 모시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사회와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초 저희 그룹은 주요 계열사 전체의 경영진을 교체해서 조직을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전반에 걸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경영 현황과 주요 전략 그리고 자료에 없는 내용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나 제시해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QnA 세션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허심탄회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A 등 자유발언

Q) 국내투자자 A

✔ BNK금융지주와의 합병 타당성 검토를 요청 받은 바 있으신데, 이사회가 검토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과 의사결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 요청 받으신 내용에 외부 자문사 검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외부 자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검토했는지 궁금합니다.

✔ 지방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둔화 등 구조적 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은행의 장기 전략을 주주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J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성제환 이사

✔ 이사회를 대표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주서한 접수 후 이사 간 안건 상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의장인 제가 안건을 설명한 뒤 출석 이사 전원이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추가 이견 여부를 두 차례 확인한 후 만장일치로 검토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전 과정은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합병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로 ① 합병은 상대방과의 상호교감을 통해 추진 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상대방 회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부적절, ② 합병 검토 시 기업 간 재무 자료 및 세부 전략 정보의 입수가 필요한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이러한 자료의 교환이 가능한 지 불분명, ③ 양사가 모두 지역 기반 금융기관이고 영업권역이 분산되어 있어 점포 통합 등 비용 시너지의 제약이 있다는 점, ④ 노조·지역사회의 반대와 고객 이탈 가능성, ⑤ 지방은행간 합병은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사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다만 지방은행의 구조적 과제와 합병 아이디어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며, 여러 이사들이 검토 가능한 주제라는 의견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은행 중 ROA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은행입니다. 즉, 지방은행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위기상황 이거나,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당 금융그룹의 계열사만 하더라도 지방은행이 2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북은행은 지역의 한계성을 더 받고 있지만, 전북지역이 아닌 곳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등 탈지역화를 추진해 전북 지역에서의 수익이 40%도 안되게 되었습니다. 은행마다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 경제가 좋지 않으니 지방은행끼리 합쳐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 추가적으로 그룹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비은행 계열사 M&A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색 맞추기"식 인수는 하지 않고, 그룹의 ROE와 시너지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래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가치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M&A 매물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보안성을 유지하며 검토할 사항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당 그룹은 지방은행 한계 대응 전략으로 탈지역화, AX·디지털 전환, 전략적 제휴, 외국인 금융·서민금융 등 니치마켓 확대 전략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이미 전북 외 지역에서 수익의 약 60%를 창출하고 있으며, Upstage와 함께 국내 최초 AI Native Bank 설립 준비를 추진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경영진 및 이사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관련하여 지방은행으로서 회사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를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A) 국내투자자 A

✔ 회사와 주주가 회사의 발전을 바라는 방향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병 타당성 검토 제안은 건설적인 의견 교환의 차원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제안한 사항들을 열린 시각에서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주주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제안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개적으로 공론화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합니다.

✔ 경영진과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되, 의견이 다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서로 만나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내투자자 B

✔ 외국인 대출과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시작한 계열사 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계열사 간 상호 수익 잠식 가능성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 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과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3개 계열사가 외국인 금융을 취급하지만 상품과 타깃 고객이 서로 다릅니다. 전북은행은 주로 E비자 단기 근로자, 광주은행은 F비자 장기체류자와 유학생, JB우리캐피탈은 외국인의 중고차 구입 금융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카니발라이제이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담보대출도 계열사별 고객 신용도·금리·LTV를 달리해 세그먼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대출 연체율은 연초 상승했으며, 2025년 말 도입한 외국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의 안정성에 일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4~5월부터 필터링과 운영전략을 전면 재점검했습니다. 이후 연체율은 다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 E비자 입국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시장의 한계를 고려해 F비자와 유학생으로 타깃을 확대하는 '외국인 금융 시즌Ⅱ'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 JB금융지주 CRO 이승국 전무

✔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외국인 신용평가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나, 신규 데이터를 추가하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적용해 모형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 신용평가사의 경우 E비자와 F비자가 결합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당사의 경험상 E비자와 F비자는 리스크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 별도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변별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Q) 해외투자자 C

✔ 최근 JB우리캐피탈 및 유가증권 이익의 기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은행·캐피탈 간 적정 이익 믹스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최근 그룹 실적이 시장 기대를 충족한 데에는 JB우리캐피탈의 실적과 유가증권 투자이익 기여가 있었으며, 이 중 유가증권 이익은 변동성이 큰 수익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룹은 이를 구조적 수익 측면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 연초 주요 계열사의 CEO 교체도 하였으며, 은행의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 상품을 RoRWA와 NIM 기준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4개의 Tier로 구분해 고수익·고효율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은행 2개의 자산 규모가 캐피탈의 약 5배인 점을 고려하면 캐피탈의 그룹 이익 기여도는 약 30%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은행 포트폴리오 조정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올해 상반기가지 상당 부분 조정을 진행해 내년부터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3년전까지만 해도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ROE는 과거 1,2위 수준이었으나 최근 2~3년간 하락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아직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북은행은 중간 수준이며 경쟁 은행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시 상위권 수준으로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강도 높은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지역 기업대출 축소와 리밸런싱·점포 합리화를 추진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은행 수익성을 높여 그룹 내 은행의 이익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해외투자자 D

✔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제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산건전성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그룹은 사전에 설정한 Risk Tolerance Level을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상 상당히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리 변동 및 경제 변수에 따라 호남권 지역경제와 그룹 부실률 간 상관관계가 특별히 급격하게 달라지는 상황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탈지역화와 전국 단위 니치마켓 확대를 통해 지역 경기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자산 건전성 관련하여 향후 6개월~1년 내 특별한 이벤트는 예측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다소 불안정한 환경이지만 정상적인 관리 범위에 있습니다.

A) J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성제환 이사

✔ 호남지역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에서는 향후 4년간 약 6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약 3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도 계획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약 1.5만 가구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장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개발에 따른 지역 내 주택 수요 및 경제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대규모 자산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다만, 향후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어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 시점에서는 관련 효과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A) JB금융지주 CRO 이승국 전무

✔ 가계여신은 은행의 100% 보증 중도금대출 연체와 캐피탈의 중고차·자동차담보대출 연체가 일부 증가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대출은 정부기관 보증 100%이기 때문에 9월중 대위 변제로 상환이 될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담보대출은 승인전략 강화 이후 신규 빈티지 연체율은 개선되고 있어 연말까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기업여신은 부동산·건설·도소매업 부실이 증가했으나 2023년 말부터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영업점 전결권을 본부로 이관하고 신용 익스포저를 약 6조원에서 5.5조원으로 축소했습니다.

✔ 해당 익스포저의 담보·보증 비중이 약 80%여서 연체·고정이하여신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실제 CCR 영향은 제한적이며, CCR은 재무계획상 관리 수준 내에서 통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 해외투자자 C

✔ 한국의 금리 상승이 기업 경영과 JB금융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금리 상승은 차주의 이자비용을 높여 원리금 상환능력과 대출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은 대출금리 상승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룹 전체 손익에 미치는 순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금리 변동기에는 여신금리 조정, 리스크 관리 등 경영 대응의 정교함이 더 중요해지므로 시장 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Q) 국내투자자 E

✔ 연초 발표 예정이라고 했던 새로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 주주환원 믹스와 관련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의 기존 원칙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기존 원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나머지 주주환원 재원은 자사주 매입·소각에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주요 주주 중 한 곳에서 제안해 주셨던 주가가 낮을 때 배당을 일부 줄이고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방안도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다만, 기존 정책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원칙을 변경하면 시장 신뢰에 부정적일 수 있어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했습니다.

✔ 현재는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을 줄이고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수준 및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주주 범위 등을 고려해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국내투자자 E

✔ 금리 상승의 손익 영향이 대체로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판단에 JB우리캐피탈의 조달·운용금리 영향과 유가증권 손익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JB우리캐피탈의 금리 변동 시 손익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앞선 설명은 캐피탈의 유가증권 손익까지 포함한 의미는 아닙니다. 유가증권 손익은 금리 외에도 주식시장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아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캐피탈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코스닥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은 있습니다.

✔ 그리고 이자이익 측면에서도 캐피탈은 저원가성 예금이 있는 은행과 달리 CP·회사채 등 시장성 조달 의존도가 높아 금리 상승에 더 민감합니다. 조달금리가 먼저 상승하고 운용금리 반영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금리 상승 시 캐피탈 이자이익에는 소폭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규 영업은 한계조달비용을 운용금리에 최대한 즉시 반영하는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Q) 해외투자자 D

✔ 2026년 상반기 JB금융과 은행 섹터 간 RoRWA 및 NIM-CCR 격차가 눈에 띄게 축소됐는데,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지표의 향후 전망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RoRWA와 NIM-CCR의 경쟁사 대비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점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사업/기반사업' 구분을 넘어 RoRWA와 NIM-CCR을 두 축으로 한 4개 티어 매트릭스를 구축해 강도 높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은행의 리밸런싱 효과가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지표 격차를 과거 수준으로 다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추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국내투자자 F

✔ 비은행 부문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증권사 없이도 비은행이 그룹 이익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은행 확대를 위해 어떤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JB금융은 이미 JB우리캐피탈의 높은 이익 기여로 국내 금융그룹 중 비은행 이익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비은행 확대가 단순히 캐피탈 비중을 더 높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첫 번째 축은 비은행 자회사 M&A로, 자문사 등에 인수 의사를 전달하고 여러 매물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축은 법인 구분을 넘어 은행 안에서도 전통적 은행업이 아닌 비이자·투자금융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과거 2~3년간 두 은행의 투자금융 포트폴리오에서 90% 이상이던 부동산PF 비중을 낮추고 인수금융·메자닌 등 비부동산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 인수 관련해서는 대형사라면 새로운 라이선스 가치를 얻을 수 있지만, 현재 자본력으로 인수가 어려우며 가능한 중소형 증권사의 주요 업무는 은행·캐피탈 라이선스로도 상당 부분 수행 가능해 프리미엄을 지급하여 인수시 실익을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 JB금융지주 COO·CAIO 박종춘 부사장

✔ 비은행 부문 확대를 위해 핀테크 협업을 넘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해외 플랫폼 및 AI 섹터 등으로의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국내 금융 산업의 높은 부동산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AI 섹터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확대보다는 그룹 규모에 맞는 투자를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시중은행 전환이나 자회사 M&A보다 AX를 중요한 미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수준을 넘어, AX를 통해 금융그룹의 업무와 사업모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AX 추진의 구체적인 사례로 국내 AI기업 업스테이지와 배타적 MOU를 체결하여 국내 최초 AI 네이티브 뱅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네이티브 뱅크는 30명 이내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저희는 현재 합병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핀테크를 중심으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등 기존에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이 많지 않은 시장을 직접 발굴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국내투자자 G

✔ AI Native Bank가 외부 투자자 관점에서 매출 성장과 비용 절감 등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 금융 등 니치마켓에 경쟁사가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높은 리스크 때문인지, JB금융이 축적한 트랙 레코드와 역량에 따른 진입장벽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A)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하자면, 외국인 대상 금융은 고객 특성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접근 방식 등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전북은행은 외국인 대출을 7~8년간 운영하며 관련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수익성을 개선해 왔습니다.

✔ 특히 외국인 전용 생활 플랫폼 'Bravo Korea'를 구축해 입국 전부터 고객과 접점을 확보하고, 금융뿐 아니라 주거, 교통 의료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유입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후발주자가 단기간 따라오기 어려운 진입장벽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약 180명에 가까운 외국인 상담 인력이 10개 이상의 현지 언어로 상담하는 점 또한 경쟁우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쟁사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AI Native Bank의 1차 목표는 비용 효율화입니다. 사람의 업무를 AI로 대체하고 30명 이내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지향하며, 비용 절감 이후 더 경쟁력 있는 금리·상품을 제공해 탑라인 성장을 만드는 단계적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AI Native Bank는 성공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예를들어 광주은행 정보계에 AI를 적용한 경험이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전북은행에도 확산 중입니다. 그룹은 2030년까지 IT 인력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향의 설계도도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AX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룹 내에서도 그 가능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AI Native Bank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은행 업계 전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모델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AI Native Bank는 핀테크가 주도하고 JB금융이 약 40%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으며, Upstage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 AX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대를 가질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코스트 이팩티브한 모델을 먼저 선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해 탑라인을 확대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인사

○ JB금융지주 CEO 김기홍 회장

금일 귀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과 질의를 주신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고 그룹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오늘 전달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이사회 및 경영진과 충분히 논의하여 경영 전략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